

2024.2/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2.8%

1. 2024.2/4분기 미국 GDP

- '24.2/4분기 GDP성장률(전기비 연율)은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분기(1.4%)보다 높은 2.8%를 기록
 - 개인소비('24.1/4 1.5% → 2/4 2.3%)는 서비스*(3.3% → 2.2%)의 오름세가 지속된 가운데 재화**(-2.3% → 2.5%)가 증가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높아짐 <성장률 기여도: '24.1/4 0.98%p → 2/4 1.57%p>
 - * 헬스케어(46.6% → 26.9%)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거 및 유틸리티(6.4% → 9.4%)와 여가 서비스(4.1% → 6.0%)의 증가폭이 확대
 - ** 자동차 및 부품(-22.1% → 6.8%)과 여가 관련 재화 및 차량(-4.9% → 9.4%)이 증가 전환하고, 가구 및 내구재(0.3% → 7.1%)의 증가폭이 확대
 - 민간투자(4.4% → 8.4%)는 구조물(3.4% → -3.3%)과 주택(16.0% → -1.4%)이 감소 하였으나, 설비(1.6% → 11.6%)와 지식재산권(7.7% → 4.5%)의 호조세와 재고 투자* 증가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 <성장률 기여도: 0.77%p → 1.46%p>
 - *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 '24.1/4분기 -0.42%p → 2/4분기 0.82%p
 - 순수출은 수출(1.6% → 2.0%)이 확대되었으나, 수입(6.1% → 6.9%)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성장기여도를 지속 <성장률 기여도: -0.65%p → -0.72%p>
 - 정부지출(1.8% → 3.1%)은 연방정부의 국방(-0.9% → 5.2%) 및 비국방(0.6% → 2.2%) 지출이 확대되고, 지방정부(6.0% → 2.0%) 지출이 오름세를 지속 하면서 증가세가 확대 <성장률 기여도: 0.31%p → 0.53%p>

(%, 전기비 연율)

	2021		2022		2023				2024	
	연중	연중	연중	연중	1/4	2/4	3/4	4/4	1/4	2/4
GDP	5.8	1.9	2.5	2.2	2.1	4.9	3.4	1.4	2.8	
개인소비	8.4	2.5	2.2	3.8	0.8	3.1	3.3	1.5	2.3	
민간투자	8.7	4.8	-1.2	-9.0	5.2	10.0	0.7	4.4	8.4	
비주택	5.9	5.2	4.5	5.7	7.4	1.4	3.7	4.4	5.2	
(구조물)	-3.2	-2.1	13.2	30.3	16.1	11.2	10.9	3.4	-3.3	
(설비)	6.4	5.2	-0.3	-4.1	7.7	-4.4	-1.1	1.6	11.6	
(지식재산생산물)	10.4	9.1	4.5	3.8	2.7	1.8	4.3	7.7	4.5	
주택	10.7	-9.0	-10.6	-5.3	-2.2	6.7	2.8	16.0	-1.4	
재고증감 ¹⁾	0.26	0.62	-0.34	-2.22	0.00	1.27	-0.47	-0.42	0.82	
순수출 ¹⁾	-1.25	-0.48	0.57	0.58	0.04	0.03	0.25	-0.65	-0.72	
수출	6.3	7.0	2.6	6.8	-9.3	5.4	5.1	1.6	2.0	
수입	14.5	8.6	-1.7	1.3	-7.6	4.2	2.2	6.1	6.9	
정부지출	-0.3	-0.9	4.1	4.8	3.3	5.8	4.6	1.8	3.1	
GDP 디플레이터	4.6	7.0	3.6	3.9	1.7	3.3	1.7	3.1	2.3	
근원 PCE상승률	3.6	5.2	4.1	5.0	3.7	2.0	2.0	3.7	2.9	

주: 1)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p)

자료: BEA

작성자: 임태균 과장

2.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 시장에서는 '24.2/4분기 GDP성장률이 견조한 민간지출*에 힘입어 컨센서스(2.0%)를 상회함에 따라, 여전히 성장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

* 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rs(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
'23.3/4 3.0 → 4/4 3.3 → '24.1/4 2.6 → 2/4 2.6

○ 다만, 향후에는 고용여건 악화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소비, 투자 등이 위축되어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24.2/4분기 근원PCE 물가상승률(2.9%, 전기비 연율)이 컨센서스(2.7%)를 상회하였으나,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

<주요 투자은행 등의 코멘트>

■ **(Morgan Stanley)** '24.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 특히 민간 지출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고용 둔화 기조와 맞물려 '23.4분기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임. 향후에는 국내 지출 및 고용이 위축되면서 연준이 올해 9월부터 '25년 중반까지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

■ **(Jefferies)** 2분기 GDP는 성장이 기대만큼 둔화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냄. 전년 동기대비 기준 2분기 GDP 성장률은 3.1%로 '22.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부의 효과에 의한 고소득층의 강한 소비가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중산층의 소비 둔화보다 클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CITI)** 성장률이 2분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와 주택투자 등의 감소로 둔화될 전망. 소비는 소매판매 데이터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위축될 것으로 보임. 주택투자의 경우 관련 통계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준이 9월 이후 25bp씩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판단.

■ **(ING)** GDP 및 근원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다만 하반기에는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팬데믹 기간 중 초과저축 고갈 등에 따른 소비 축소와 경기둔화 우려 등에 의한 기업들의 투자 감소 등으로 GDP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전망

■ **(UBS)** 2분기 민간지출 증가율이 전분기와 같았으나,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임. 3분기에도 재정지출이 축소되고,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 한편, 2분기 근원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6월 근원 PCE 물가(전년동기대비)가 2.6%를 기록할 전망